

大學院 入學試驗 및 學位論文提出 資格試驗 英語 考査에 대한 所見

金 韓 坤

(人文大學 英語英文學科 教授)

I. 서 론

현행 대학원 시험에서의 영어과목의 현황을 살펴보고 단일 그에 문제가 있다면 그 개선책을 토의하기 위한 발제를 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는다.

II. 현행제도 안에서의 대학원 시험의 한 과목으로서의 영어

(1) 입학시험

응시회수 : 연 1회

내 용 : 문법, 독해를 중심으로 한 객관식 4지 선다형 평균문항수 40개

영어 및 전공의 합격선 : 석·박사 : 영어 40/100

전공 120/200

(2) 자격시험

응시회수 : 연 2회

내 용 : 문법, 독해를 중심으로 한 객관식 4지 선다형 평균문항수 50개

영어 및 전공의 합격선 : 영어 : 석사 60/100

박사 70/100

전공 : 석사 60/100

박사 70/100

III. 현행제도의 문제점으로 거론된 사안들

현행제도에 대하여 그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들 중에 영어에 관계되는 것만 들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다.

(1) 회수 : 석·박사를 다 서울대학교에서 하는 학생들은 입학시험 2회, 자격고사 2회를 치루게 되는데 유사한 시험을 석·박사를 합쳐 4회나 치게 하는 것은 너무 많은 회수로서 전공에 열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 제도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2) 내용 : 시험의 내용에 관해서는 특별히 지적된 것은 없었으나 4지 선다형의 객관식 출제에 대한 회의 표명이 있었고 각 전공계열별 특성을 살려 주었으면 하는 희망이 간혹 피력되어 왔다.

(3) 합격율 : 합격율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지적된 바는 없으나 수요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수요가 합격되지 못한 데 대한 욕구불만 같은 것이 표출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는 비단 영어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보아 지금의 제도는 산학협동이 필요한 현 실정에 맞지 않은 제도로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4) 프로그래밍 언어를 외국어로 칠 것인가?

전공 계열에 따라 일각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도 외국어로 간주될 수 있다는 생각도 있다는 말이 있다.

(5)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외국어”

현행 교육법 시행령은 국내에서의 학위 수여에 영어가 필수적 제 1외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중에서 영어권 출신의 학생들은 비영어권 출신의 학생들보다 유리하여 형평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Ⅳ. 외국에서의 판례

미국 :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2개 외국어를 학위의 자격으로 과하고 있으나 그 과목의 수요, 특정언어의 지정 등은 학위 수여 예정자의 학위위원회(Committee)나 학과에서, 그리고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도 단과대학에서 결정하는 것이 상례이다.

외국어의 수요나 특정언어를 지정하는 데에 주로 배려되는 사항은 응시자의 전문분야에 필요한 정보가 많이 발표된 언어(들)을 우선적으로 채택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유럽 각국에서의 관행은 조사하지 못하였는 바 제 2외국어 과목 발제자들에게서 정보를 얻기를 기대한다.

V. 현행제도의 가능한 개선방향

현행제도를 개선하려면 법률 및 그 시행령을 개정하는 대폭 수정과 현행법을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규정의 해석 등 실천적인 면을 개선하는 두 방향으로 가능하겠으나 여기에서는 그러한 구분을 하지 않고 다만 가능한 개선의 내용이나 방향만을 열거해 본다.

(1) 산학 협동 관련 : 학위 종류의 다양화

산학협동은 시대적인 요청이므로 이를 대폭 수용할 수 있다면 바람직한 일이나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구미의 M.A., M.S., Ph.D.에 해당하는 우리의

석사·박사제도의 수여 취지 자체를 너무 변질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시대적인 변화는 기존의 학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도 그와 다른 새로운 디플로마의 종류를 몇 가지를 더 만들어 그러한 과정의 강조점의 차이나 외국어 등 기타 이수 배경에 따른 구분을 하면 해결될 문제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새로 생기는 수요에도 대응하면서 보다 학문적인 전통을 지닌 Masters, Ph.D.의 특성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라고 생각한다. 또한 외국에서도 학위 종류의 다양화현상은 자연스러운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영어 시험 시행의 빈도 및 시기

현행 4회는 대학원 재학기간 4~8년을 기준으로 볼 때 1~2년마다 영어 시험을 한번씩 치르는 결과가 되며 그 내용도 같은 능력측정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그 회수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어 테스트의 유효기간 관행은 2년인 바 이를 50퍼센트 연장하여 3년으로 잡고 1회의 응시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과정(학위포함)을 끝내지 못한 사람은 다시 응시하도록 하여 그 유효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안을 제안코자 한다.

시험 시기는 연 3회 정도의 주기를 정하여 선 지원에 의해 수시 응시토록 하는 신축성을 줌이 바람직하다. 또 입학시기와 관련해서 석사과정, 박사과정 공히 (가) 입학원서 제출의 한 요건으로 어학시험의 결과를 요구하거나 (나) 입학후 1년내에 1차 응시를 의무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발표자는 특히 전자가 좋다고 생각한다. 단 본교 출신의 박사과정생에게는 1차시험의 유효기간은 물론 시험일에서 3년간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3) 시험 내용의 개선

일반적인 특성의 언어능력 측정은 이른바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의 4기능을 균일하게 테스트하는 것이나 대학원 교사와 같이 특정한 목적을 가진 언어능력측정은 그 특성에 따라 어떤 기능들을 더 주관점으로 삼을 수 있다.

또 한편으로 언어능력측정을 내용면에서 볼 때 크게 나누어 (1) 기본공통부분, (2) 전문·직업부분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함이 편리하다. 흔히 이른바 “언어능력테스트”(Proficiency Test)라는 것은 이 두가지 중에서 (1)에 속하는 것으로 전공 분야나 전문·직업분야에 상관없이 모든 분야에 공통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언어능력의 최대공약수를 그 측정목표로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2)는 전문·직업분야에 필요한 전문술어나 문서를 해독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중에서 (2)는 각 전공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언어측정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그 내용의 윤곽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시험의 시행은 언어전문기관이나 학과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1)은 언어능력기능 중에서도 기본적인 중핵을 이루는 부

분으로서 상당한 전문성을 가진 분야이다. 따라서 이는 그 내용의 정 의나 시행을 다 전문기관에 맡겨서 권장토록 함이 바람직하다.

이상의 논의를 배경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먼저 대학원 영어교사는 기본공통부분과 전문부분의 2부분으로 구성하되 이 두 부분에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마련한다.

(가) 기본공통부분의 개선 :

현행의 필기시험만에 의한 교사를 필기와 구술교사로 복합구성하고 새로 첨가되는 구술교사에서 필요에 따라 독해력, 구술발표력, 청취력 등도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필기교사에도 필요에 따라 작문력을 더 강조하여 포함시킨다.

(나) 전문·직업부분의 개선 :

각 전공분야별로 단과대학이나 학과가 중심이 되어 해당분야에 필요한 전문술어를 정리하게 하여 이를 사전에 응시자에게 공고하고 그 정해진 술어를 언어시험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전문 및 직업부분에 관련한 능력의 적절한 반영을 하도록 한다. 여기에서 기본공통부분과 전문·직업부분의 비율이 문제되는데 발표자는 공통부분 80에 전문부분 20의 비율을 제안한다.

(4) 영어 시험 대비 과목의 신설

영어시험 시행기관 또는 학과에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학과목을 신설하여 필요한 지원자에게 학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5) 대학원 연구능력 적성교사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외국의 GRE 등 일반표준 검사에 준하는 “대학원 연구능력 적성교사”(가칭) 같은 것을 만들어 대학원생의 언어능력에 국한하지 않고 고급연구 및 기술 인력이 될만한 기본 소양이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시험에도 전공에 필요한 기본 소양 뿐만 아니라 외국어도 포함되어야 하며 그러한 교사가 상당 기간 실험을 통하여 그 신빙성이 입증된 다음에는 현행 외국어 시험은 그러한 시험으로서의 완전 대체도 가능하다고 본다.

(6)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외국어”에 대한 대책

모국어가 영어권에 속하는 학생들에게는 한국어를 필수 외국어로 부과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모국어가 비영어권인 학생들에게는 영어를 필수 외국어, 그리고 한국어를 제 2외국어로 부과하는 것이 그들의 학습을 효율있게 하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어의 부과가 외국인 학생들에게 지나친 부담이라는 생각도 있겠으나 그를 대비한 학과목을 운영하고 그것을 교양국어의 대체과목으로 쳐주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7) 기타 : 프로그래밍 언어를 외국어로 칠 것인가?

인조언어와 자연언어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지금 전산학의 추세는 인조언어와 자연언어의 사이에 큰 간격을 메꾸려는(interface) 추세에 있다고 발표자는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인조언어를 자연언어로 대체하자는 생각은 이러한 일반 추세와도 역행하는 것이며 또 외국어를 학위수여의 요건으로 채택한 본래의 뜻에도 부합되지 않는 생각이라고 본다.

부기 : 외국어 과목의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이나 학과의 특별 지원이 절실히 요청된다.

VI. 결 론

〈별첨〉

※ 참고 1 : 논문제출 자격시험(영어) 합격율(%)

연	도	1986		1987		1988		계 평 합 격 율 (%)
		1 학기	2 학기	1 학기	2 학기	1 학기	2 학기	
석 사	인문사회계		91.4	88.4	83.5	93.0	88.3	88.92
	자연계 I		87.3	88.1	90.9	84.8	88.6	87.94
	자연계 II		86.7	82.7	85.7	84.6	84.4	84.82
	예술체육계		84.5	55.1	72.6	67.2	86.2	73.12
박 사	인문사회계		82.4	82.0	81.4	82.0	80.4	81.64
	자연계 I		93.8	70.5	78.7	77.9	75.7	79.32
	자연계 II		97.9	75.4	85.0	76.9	83.8	83.80
	예술체육계							

※ 참고 2 : 대학원 입학시험(영어) 합격율(%)

1987학년도

합·불합격		합 격 율			불 합 격 자 수				
계 열		지 원	합 격	율(%)	전공	영어	2 외	성적	계
석 사	인문사회계	3,394	868	25.6	1,561 61.8	34 1.3	56 2.2	875 34.7	2,526
	자연계 I	2,644	1,060	40.1	807 10.2	161 10.2	—	616 38.6	1,584
	자연계 II	733	254	34.7	128 26.7	69 14.4	—	282	479
	예 술 계	305	68	22.3	62 26.2	33 13.9	—	142 39.6	237
	합 계	7,076	2,250	31.8	2,558 53.0	297 6.2	56 1.2	1,915 39.6	4,826
박 사	인문사회계	621	193	31.1	263 61.5	13 3.0	24 5.6	128 29.9	428
	자연계 I	604	338	55.9	100 37.6	74 27.8	—	92 34.6	266
	자연계 II	249	111	44.6	19 13.8	11 7/9	—	108 78.3	138
	예 술 계								
	합 계	1,474	642	43.6	382 45.9	98 11.8	24 2.9	328 39.4	832

1988학년도

합·불합격		합 격 율			불 합 격 자 수				
계 열		지 원	합 격	율(%)	전공	영어	2 외	성적	계
석 사	인문사회계	2,865	825	28.8	1,155 56.6	36 1.8	74 3.6	775 38.0	2,040
	자연계 I	2,424	1,134	46.8	832 64.5	95 7.4	—	363 28.1	1,290
	자연계 II	723	266	36.8	169 36.9	72 15.8	—	216 47.3	457
	예 술 계	312	70	22.4	44 18.2	31 12.8	—	167 69.0	242
	합 계	6,324	2,295	36.3	2,200 54.6	234 5.8	74 1.8	1,521 37.8	4,029

박사	인문사회계	529	194	36.7	147 43.9	5 1.5	10 3.0	173 51.6	335
	자연계 I	608	377	62.0	103 44.6	19 8.2	—	109 47.2	231
	자연계 II	271	97	35.8	37 21.3	5 2.9	—	132 75.8	174
	예 술 계								
합 계		1,408	668	47.4	287 38.8	29 3.9	10 1.4	414 55.9	740

1989학년도

합·불합격		합 격 율			불 합 격 자 수				
계 열		지 원	합 격	율(%)	전공	영어	2 외	성적	계
박사	인문사회계	2,836	882	31.1	1,144 58.5	35 1.8	24 1.2	751 38.5	1,954
	자연계 I	2,530	1,160	45.8	910 66.4	79 5.8	—	381 27.8	1,370
	자연계 II	682	279	40.9	142 35.2	40 9.9	—	221 54.9	403
	예 술 계	309	74	23.9	26 11.1	48 20.4	7 3.0	154 65.5	235
합 계		6,357	2,395	37.7	2,222 56.1	202 5.1	31 0.8	1,507 38.0	3,962
박사	인문사회계	505	239	47.3	148 55.6	5 1.9	14 5.3	99 37.2	266
	자연계 I	672	464	69.0	86 41.3	3 1.4	—	119 57.3	208
	자연계 II	294	150	51.0	37 25.7	0	—	107 74.3	144
	예 술 계								
합 계		1,471	853	58.0	271 43.8	8 1.3	14 2.3	325 52.6	618